

沈舜澤

神道碑

심순택 신도비

領議政青寧公

領議政青寧公大勳位謚文忠青松沈公神道碑
光武十年丙午二月二日領敦寧司事公爵青寧
雅性度和惠臨事決疑雍容密勿紳笏中書十有
有輔弼之勲勞退老鄉第尚有著龜之依毗年齡
青寧公喪東園副器一部輸送禮葬等節照例舉
舉行太常以勤學好問事君盡節宜謚文忠報曰
郡東麓向午之原將考令式勒文螭首顯誦公德
義有所不能辭謹按公諱舜澤字樺華高麗衛尉
定安策開國勳至領議政青川府院君謚孝安諱
議政謚忠惠諱連源領敦寧府事青陵府院君謚
公長男諱仁謙郡守仲男諱義謙大司憲青陽君
行吏曹判書謚清獻不主蕩平論有大名於公為

심순택 신도비

沈舜澤 神道碑

- 소재 :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 시대 : 대한제국 (1908)
- 규모 : 총고(總高) 289cm / 신고(身高) 178cm / 폭(幅) : 66cm
후(厚) 61cm



▶ 찾아가는 길

진위면사무소에서 진위향교 조금 못 가서 좌측 샅길을 따라 오르면 청송심씨의 고가(古家)가 보이며, 그 좌측 발 밑에 신도비가 있으며, 바로 위에 묘가 있다.

▶ 참고문헌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평택군지, 송탄시사

碑文

領議政青寧公大勳位諡文忠青松沈公神道碑銘并序

光武十年丙午二月二日領敦寧司事公爵青寧沈公卒于第訃聞上下隱卒之詔曰此大臣風儀粹雅性度和惠臨事決疑雍容密勿紳忽中書十有餘載彈竭忠悃助朕爲理裨益實多及夫邦命維新蔚有輔弼之勳勞退老鄉第尙有著龜之依毗年齡彌邵精識不衰豈意逝單遽至朕心愴盡無以爲懷卒青寧公喪東園副器一部輸送禮葬等節照例舉行遣亞卿致祭祭文親撰以下節惠之典不待狀葬前舉行太常以勤學好問事君盡節宜諡文忠報曰可於是公之終始衰榮兼備越三月十六日葬于振威郡東麓向午之原將考令式勒文螭首顯誦公德傳之無窮公之從父兄之子相璜狀公行請文於鶴鎮義有所不能辭謹按公諱舜澤字穉華高麗衛尉丞諱洪孚始籍青松 本朝有諱德符侍中青城伯諡定安策開國勳至領議政青川府院君諡孝安諱溫領議政青松府院君翊戴佐理功臣諡恭順諱澮領議政諡忠惠諱連源領敦寧府事青陵府院君諡翼孝諱綱四世三公兼爲國舅者兩世益大以顯翼孝公長男諱仁謙郡守仲男諱義謙大司憲青陽君持清議領袖士林生諱 恹 恹出后郡守公五傳而諱宅賢行吏曹判書諡清獻不主蕩平論有大名於公爲五世祖也曾祖諱豐之禮曹判書贈贊成文衡諡貞簡 正廟賜頤頤而長休休之風八言扁而號之祖諱能岳行吏曹判書考諱宜隣進士有篤行早世妣宜寧南公諱駿行女公以 純廟甲申七月十一日生庚戌登增廣文科壬子翰林召試被選癸丑出監扶安縣乙卯以校理召還尋陞通政丁巳又出爲安岳郡守戊午爲大司成辛酉爲副提學叅議吏曹壬戌進嘉善丁卯爲吏曹叅判甲戌觀察湖西大臣筵白超擢資憲戊寅爲冬至正使己卯廻還判

禮曹親祭贊禮加正憲爲左賓客庚辰拜吏曹判書壬午 東宮初行太廟展謁以提調陞崇政癸未爲藝文弘文兩館提學又加崇祿甲申拜相辛卯特 拜兼兵曹判書辛丑特叙勳一等賜太極章壬寅特賜李花章入耆社 親臨咸寧殿錫宴耆堂仍賜几杖祗受日遣秘書丞宣醜仍賜二等爵進表謝恩丙午特進公爵爲青寧公公天姿寬而重和而有守平生不爲新奇高遠之論忠信自仗夷險不貳歷試內外言行相孚以是受知 聖明終致大用公益自感激殊遇竭誠彌綸少濟艱屯而國家之實太平久矣變故層生整頓無望如嚮晦之勢浸至漫漫而已矣則公獨於時運何哉忠憤填胸至有自經於甲申之變幸賴傍救者然公之以死報國之心於此可見矣至於乙未之禍含冤忍痛陞伏窮山益無生意特感 上眷遇不衰時戚起居蓋盡分之義也公雖退老憂國愛君之心根於性每國有大事輒與諸大臣盡力匡救李容翊恃恩無顧忌公伏閣請罪其罪至被不叙及五條約成又與趙相公聯筭聲討趙相公卒以身殉 上召公勉諭曰元老大臣盡死誰與爲國者卿勿死勿死公對曰欲臣無死早從臣請臣已判一死上來不得請則不得不死矣相特半夜及退掖隸踵至相守不離求死亦不得而公之宿患越添鼻還鄉第寢疾而卒享年八十有三公之相業其可書者多而惟此數事爲末節之大者故特書之以包其餘云公篤於內行既孤露事伯氏庶尹公如嚴父言行動止不敢少有違拂苟非公事遠離則相就湛樂和氣融洽雖年位已高而侍側服勤未嘗少懈誠意藹皓然及庶尹公沒與季氏判書履澤通家而居出入臥起必偕談笑歡謔不離須臾人比之春津之美子姪有過失輒諄諄誨飾使自知悔雖僕隸之賤未嘗聲色詆罵其存諸中者和順故其忠厚之著於應接者類此詩曰溫溫恭人維德之基公之謂乎鶴鎮每進拜於公見其頷髮醜顏諧笑樂易既老而風采猶不衰公原配 贈貞敬夫人韓山李氏郡守晉在女癸未生壬申卒育二女繼配貞敬夫人綾城具氏泰和女育一女皆有

婦道公無遺德系子相繼承旨早均子柱燮今叅奉女金炳軾今承旨
李重哲李尙珪皆郡守三婿重哲系子泌鐘叅奉銘曰

我東氏族罕出沈右桓桓青城啓基博厚承以三相兼爲國舅懿哉
青陽清議領袖清獻大名蕩平匡救貞簡父子極位相副司馬克肖有
行無壽是生相公爲朝德首休休之風血禪氣受是其有容孰過於此
古之良相豈有他技 帝曰嘉內一節不弛托以股肱惟毗惟倚公曰匪
材曷稱明旨股肱之譬請有復矣不曰其喜繇元首起念茲在茲敢不
盡義由是臨事惟理之視其無害矣將順其美如有否者彌縫於始人
成不識是議銘以辨之以昭公志尙有考者我辭無媿

崇政大夫 奎章閣 大提學安東金鶴鎮謹撰

輔國崇祿大夫侍從院卿大勳位驪興閔丙爽謹書

頭篆 崇祿大夫議政府叅政 安東金聲根謹書

隆熙 二年 三月 日

번역문

영의정·청령공·대훈위(領議政靑寧公大勳位)이었으며 시호가 문충(文忠)인 청송(靑松) 심공(沈公)의 신도비명과 서

광무(光武) 10년(1906) 병오(丙午) 2월 2일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공작(公爵) 청녕(靑寧) 심공이 집에서 즐하였다. 부음이 황제에게 알려지자 몰래 죽음을 애도하는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 대신은 풍의(風儀)가 수아(粹雅)하고 성품이 화혜(和惠)¹⁾하였으며 일에 임하여 결정할 때는 옹용밀물(雍容密勿)²⁾하였다. 신홀(紳忽)³⁾로서 중서(中書)⁴⁾에서 10여년 있었는데 충성을 다하여 짐을 도와 다스림에 도움이 되는 바가 실로 많았다. 무릇 나라의 운명을 더욱 새로이 하려했을 때 보필한 훈공이 매우 많았다. 나이가 들어 고향집에 물러가 있어서도 여전히 의지하는 바가 있었다. 요즈음 나이가 들었다고는 하나 생각하는 바는 쇠하지 않았는데, 어찌 홀로 갑자기 떠나느냐. 짐의 마음이 슬퍼서 그 감회를 모두 말할 수 없도다’ 하고 이어 청령공(靑寧公)의 상례를 위해 동원부기(東園副器)⁵⁾ 1부(一部)를 보내고 예장(禮葬)의 절차는 이전의 사례에 비추어 거행하였다. 아경(亞卿)을 보내 치제(致祭)⁶⁾하고 친히 제문을 찬하셔서 아랫 사람의 절의에 대한 은혜를 보이셨다. 장(狀)을 기다리지 않고 장례를 앞서 거행하였는데, 태상(太常)⁷⁾에서는 학문에 부지런하고 임금을 섬김에 절의(節宜)를 다하였다 하여 문충(文忠)이라 올리니 가하다고 하셨다. 이것이 공의 처음과 끝이니 쇠영(衰榮)이 함께 있었다. 3월 16일 진위군 동쪽 기슭 향오지원(向午之原 : 남향)에 장사지냈다. 장차 법식을 상고하여 글을 새겨넣고 이수(虯首)⁸⁾를 세우며 공의 덕을 칭송하여 오랫동안 전해지게 하기 위해 공의 종부형(從父兄)의 아들 상황(相瓚)이 공의 행장을 학진(鶴鎭)에게 청하였는데 의리상 사양할 수 없는 바가 있었다. 삼가 살피건대 공의 이름은 순택(舜澤)이요 자는 치화(樨華)이다. 고려 위위승(衛尉丞)⁹⁾ 홍부(洪孚)가 처음으로 청송을 본관으로 삼았다. 본조의 덕부(德符)¹⁰⁾는 시중을 지내고 청성백(靑城伯)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정안(定安)으로 개국훈(開國勳)¹¹⁾에 책봉되었다. 영의정·청천부원군(領議政靑川府院君)으로 시호가 효안(孝安)이신¹²⁾ 온(溫)¹³⁾, 영의정·청송부원군(領議政靑松府院君)으로 익대¹⁴⁾·좌리공신(翊戴佐理功臣)에 봉해졌으며 시호가 공순(恭順)¹⁵⁾이신 회(澮)¹⁶⁾, 영의정으로 시호가 충혜(忠惠)인 연원(連源)¹⁷⁾, 영돈녕부사·청릉부원군(領敦寧府事靑陵府院君)으로

시호가 익효(翼孝)인 강(綱)¹⁸에 이르기까지 4세에 걸쳐 삼공(三公)¹⁹이었으며 겹하여 2대에 걸쳐 국구(國舅)²⁰가 되었으니 더욱 크게 현창한 것이다. 익효공의 장남 인겸(仁謙)²¹은 군수이며 중남(仲男) 의겸(義謙)²²은 대사헌·청양군(大司憲靑陽君)으로 청의(淸議)를 지켜 사림의 영수(領袖)가 되었다. 의겸은 엄을 낳았는데, 엄(掩)은 군수공의 후사가 되었다. 5세가 지나 택현(宅賢)²³은 행이조판서(行吏曹判書)였으며 시호는 청헌(淸獻)으로 탕평론(蕩平論)²⁴을 주도하지 않으므로 큰 명성이 있었는데, 공에게는 5세 조가 된다. 증조 풍지(豐之)²⁵는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내고 찬성·문형(贊成文衡)²⁶으로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정간(貞簡)²⁷이다. 정묘(正廟)²⁸께서 ‘기기가장 휴휴지풍 頤頤而長休休之風’²⁹이라는 8자로서 편액하여 호칭하였다. 할아버지는 능악(能岳)³⁰으로 행이조판서이며, 아버지 의린(宜隣)³¹은 진사로서 돈독한 행동이 있었으나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의령 남공 준행(駿行)의 딸이다. 공은 순묘(純廟)³² 갑신년(1824) 7월 11일에 태어났다. 경술년(1850) 증광시(增廣試) 문과에 급제하였고 임자년(1852) 한림소시(翰林召試)에 선발되었다. 계축년(1853)년 부안현감으로 나갔고, 을묘년(1855) 교리(校理)로서 소환되었으며 곧 통정(通政)에 올랐다. 정사년(1857) 다시 안악³³군수(安岳郡守)로 부임하였다가 무오년(1858) 대사성(大司成)³⁴이 되었으며 신유년(1861) 부제학·이조참의가 되었다. 임술년(1862)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였고 정묘년(1867) 이조참판이 되었으며 갑술년(1874) 호서(湖西)를 관찰하였다.³⁵ 대신들의 천거로 자헌대부(資憲大夫)로 발탁되었고 무인년(1878) 동지정사(冬至正使)³⁶가 되었으며 기묘년(1879)에 청나라에서 돌아왔다. 예조판서(禮曹判書)로서 친제(親祭)³⁷를 찬례(贊禮)³⁸하였다.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오르고 좌빈객(左賓客)³⁹을 제수받았으며 경진년(1880) 이조판서가 되었다. 임오년(1882) 동궁이 처음으로 태묘(太廟)⁴⁰에 전알(展謁)할 때의 제조로서 승정대부(崇政大夫)에 올랐다. 계미년 예문·홍문(藝文弘文) 양관(兩館)의 제학이 되었고 다시 승록대부(崇祿大夫)가 더해졌다. 갑신년(1884) 재상⁴¹에 제배되었고 신묘년(1891) 특별히 병조판서를 겸했다. 신축년(1901), 특별히 서훈 1등으로서 태극장(太極章)⁴²을 받았다. 임인년(1902) 이화장(李花章)⁴³이 특사되었고 기사(耆社)⁴⁴에 들었다. 황제께서 함녕전(咸寧殿)⁴⁵에 친림(親臨)하여 기로소에 잔치를 베풀 때 궤장(几杖)을 하사받았으며 그날 황제께서 비서승(秘書丞)⁴⁶을 보내어 선은(宣醢)⁴⁷을 베풀었고 함께 2등작(二等爵)을 내리니 표(表)를

올려 은혜에 사례하였다. 병오년(1906) 공작(公爵)으로 특진하여 청령공(靑寧公)이 되었다. 공은 하늘이 준 품성이 너그럽고 묵직하였으며 조화로우면서도 지키는 바가 있었다. 평생 새롭고 기이한 것이나 고원(高遠)⁴⁸⁾의 논의는 하지 않았다. 충성과 믿음으로써 스스로 자부했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내외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언행이 서로 맞았고 이로써 임금의 뜻에 맞아 끝까지 크게 쓰였으니 공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자신이 감격하여 더욱 정성을 다하여 미륵(彌綸)⁴⁹⁾하였는데, 잠시동안 간둔(艱屯)⁵⁰⁾하였다. 오랫동안 태평함이 오래되더니 변고가 차츰 생겨 정돈(整頓)되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 마치 향희(嚮晦)⁵¹⁾의 형세가 차츰 스며들어 가득찬 것과 같았다. 공은 홀로 ‘시운(時運)을 어찌할 것인가’라며 충성스런 울분이 가득찼다. 갑신의 변란⁵²⁾을 겪게 되었을 때 다행히 옆에서 구원하는 자에 힘입을 수 있었다. 공의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은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을미년의 화(禍)⁵³⁾에 이르러서는 원통함을 품고 아픔을 참으며 궁벽한 산 속에 전복(跽伏)⁵⁴⁾하며 더욱 살고자하는 뜻이 없었으나 특별히 임금의 권우(眷遇)⁵⁵⁾는 쇠하지 않았다. 시척(時戚)과 기거(起居)⁵⁶⁾가 대개 진분(盡分)의 의(義)였다. 공은 비록 은퇴한 원로였지만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품에 뿌리박혀 매양 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문득 대신들과 함께 진력을 다하여 바로 잡으려 하였다. 이용익(李容翊)⁵⁷⁾은 황제의 성은을 믿고 거리끼는 것이 없었는데, 공이 함문(閤門)⁵⁸⁾에 옆드려 그 죄를 청하여 서용되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오조약(五條約)⁵⁹⁾이 이루어짐에 미쳐 조상공(趙相公: 조병세)⁶⁰⁾과 더불어 연명하여 차자(筭子)를 올려 성토했었는데 조상공이 마침내 홀로 순국하였다. 황제께서 공을 불러 깨우쳐 말하기를 “원로대신들이 모두 죽으면 누구와 함께 국가를 위하겠는가? 경은 죽으면 안되네, 죽으면 안되네” 하셨다. 공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신이 죽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속히 신의 청을 따르십시오. 신은 이미 한번 죽기로 결심하였으므로 신의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부득불 죽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렇게 한 밤중까지 버티고있다가 물러났는데 액예(掖隸)⁶¹⁾가 쫓아다니며 잠시도 떠나지 않으므로 죽을 수 없었다. 공이 숙환으로 첨여(添昇)를 건너 고향의 집으로 돌아와 병을 앓다가 졸하니 향년 83세였다. 공은 재상으로서 업적 가운데 기록할만한 것이 많지만 오직 이 몇 가지 일은 말절(末節)⁶²⁾ 가운데 커다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써서 나머지를 포괄하는 것이다.⁶³⁾ 공은 내행(內行)⁶⁴⁾에 돈독하여 어려서 아버지를 여

의고 만형 서윤공(庶尹公)을 섬김에 엄부(嚴父)와 같이 하였으며 말하는 행실이나 행동거지가 조금의 어긋나는 것이 없었다. 공사로 멀리 떠나지 않은 즉, 서로 나아가 즐겨 화기가 융합하였다. 비록 나이가 많고 지위가 이미 높아졌으나 옆에서 모시며 근무함에 게으름이 없었으며 정성스럽고 명백히 하였다. 서윤공이 졸함에 미쳐 아우 판서 이택(履澤)⁶⁵과 집을 통하여 살면서 출입하고 자고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같이 하였다. 담소하고 즐기고 노는 것을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춘진(春津)의 아름다움에 비견하였다. 아들과 조카가 과실이 있으면 곧 순순히 깨우쳐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 비록 복예(僕隸)와 같은 천한 자에게도 소리내고 얼굴을 붉히며 꾸짖지 않았다. 그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이 온화하고 순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응대함에 있어서 충직하고 순후함이 드러난 것이 이와 같았다. 시경(詩經)의 ‘온순하고 공손한 사람은 덕의 기본이니라 [溫溫恭人維德之基]⁶⁶’는 공을 이르는 것이다. 학진(鶴鎭)이 매번 공에게 나아가 절하고 뵈올 때마다, 턱수염 많은 붉으스레한 얼굴로 해맑게 웃으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았으니, 나이는 이미 늙으셨으나 풍채는 오히려 쇠퇴하지 않으셨다. 공의 원배(原配)⁶⁷는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한산(韓山) 이씨로 군수 진재(晉在)의 딸이다. 계미년(1823)에 태어나 임신년(1872)에 졸하셨으며 딸 둘을 낳았다. 계배(繼配)⁶⁸는 정경부인 능성(綾城) 구씨로 태화(泰和)의 딸이며 딸 하나를 낳았다. 모두 부도(婦道)를 갖추었으나 공은 유덕(遺德)이 없었다. 계자(系子) 상진(相璣)은 승지였는데 일찍 죽었다. 아들 주섭(柱燮)은 지금 참봉이다. 딸은 김병식(金炳軾)에게 시집갔는데, 지금 승지이며. 다른 두 딸은 이중철(李重哲) 이상규(李尙珪)에게 시집갔으니 모두 군수로 사위가 셋이다. 중철(重哲)의 계자 참봉 필중(泌鐘)이 명하였다.

승정대부·규장각대제학(崇政大夫奎章閣大提學) 안동 김학진(金鶴鎭)이 삼가 짓고

보국승록대부·시종원경·대훈위(輔國崇祿大夫侍從院卿大勳位) 여흥(驪興) 민병석(閔丙奭)이 삼가 쓰고

두전(頭篆)은 승록대부·의정부참정(崇祿大夫議政府參政) 안동 김성근(金聲根)이 삼가 썼다.

융희(隆熙) 2년(1908) 3월 일

주석

- 1) 원만하고 은혜로움.
- 2) 조용하게 힘쓰는 모양.
- 3) 큰 띠와 홀. 즉 고관들이 입는 옷으로 전하여 지위가 높은 벼슬아치를 뜻함.
- 4) 재상의 관청.
- 5)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
- 6) 공신에 대한 제사.
- 7) 공신이나 고위 관인의 사후에 시호를 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청.
- 8) 이두(螭頭)라고도 한다. 비(碑)의 머리, 인장(印章), 궁전의 섬돌, 종정(鐘鼎) 등에 뿔 없는 용의 서린 모양을 새긴 형상
- 9) 고려시대 의장(儀仗)과 그에 따른 기물을 맡아본 관청의 종6품 관직. 위위시는 개국 초 내군(內軍)이라 칭하다가, 960년(광종 11) 장위부(掌衛府)로 이름을 바꾸었다. 다시 사위시(司衛寺)로 하였다가, 995년(성종 14) 위위시로 고쳤다. 문종 때 정비된 관원을 보면 판사(判事: 정3품)·경(卿: 종3품)·소경(小卿: 종4품) 각 1명, 승(丞: 종6품) 2명, 주부(注簿: 종7품) 2명을 두었다. 이속(吏屬)으로는 서사(書史) 6명과 정원 미상의 기관(記官)을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 판사를 없애는 대신 윤(尹)을 두어 으뜸벼슬로 하였으며, 1308년 이부(吏部)에 병합하였다. 1331년(충혜왕 1) 환원되어 판사·영(令: 종3품)·소윤(少尹: 종4품)·승·주부 등을 두었다. 그 뒤 영을 경으로, 소윤을 소경으로 고치는 등 관직의 명칭 변화가 있었고, 1389년(공양왕 1) 중방(重房)에 병합되었다.
- 10) 『태종실록』에 실린 심덕부(1328~1401)의 줄기는 다음과 같다.

청성백(靑城伯) 심덕부가 졸하였다. 덕부의 자는 득지(得之)이니, 청부현(靑鳧縣) 사람이며, 전리정랑(典理正郎) 심용(沈龍)의 아들이다. 문음으로 처음에 좌우위녹사참군사가 되고, 여러 번 옮기어 소부윤이 되었다. 공민왕 13년 갑진(1364)에 나가서 수원부사가 되었을 때, 안렴사가 이르매, 덕부가 알현하러 갔다가, 안렴사가 옷을 갖추지 않은 것을 보고 그대로 물러왔다. 안렴사가 아전을 시켜 꾸짖으니 “옷이 법도와 같지 않다.” 고 대답하니 안렴사가 불민함을 사과하였고 그 단정하고 깨끗함이 이와 같았다. 병오년에 어머니 상사를 당하여 매우 애통한 나머지, 몸이 수척해져서 소문이 났었다. 우왕 원년(1374) 을묘에 예의판서(禮儀判書)로 강계도만호(江界都萬戶)가 되었는데, 재주가 장수(將帥)의 책임을 감당할 만하여 명성이 더욱 드러나서, 발탁되어 밀직부사 의주부원수(義州副元帥)가 되었다. 정사년(1377)에 서해도부원수(西海道副元帥)가 되었고, 무오년(1378)에 밀직사로 제수되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전대(專對)함이 채치었고 빨랐다. 경신년에 왜적이 우리 남쪽 변방을 도둑질하여, 그 형세가 심히 성하였는데, 누선(樓船) 40척을 거느리고 가서 이를 치자 도적들이 다시는 날뛰지 못했다. 을축년(1385)에 동북면에 도적의 위급함이 있었으므로 덕부에게 절월을

주어 특별하게 하였다. 병인년(1386)에 문하찬성사로 명나라 서울에 조회하고 돌아왔으므로, 청성부원군(靑城府院君)을 봉하였다. 무진년(1388)에 우리 태조를 따라 위화도에 이르렀다가 창의하여 회군하였고, 공양왕 원년 기사년(1389)에 문하좌시중, 경기 좌우도·평양도 도통사(都統使)가 되었다. 경오년(1390)에 중상을 받아 토산현(兎山縣)에 귀양갔다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소환되었다. 신미년(1391)에 다시 좌시중이 되어, 공양왕의 세자 석(奭)을 따라 명나라 서울에 조회하였다. 임신년(1392)에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로 옮겼고, 태조가 즉위한 뒤에 회군한 공을 추록(追錄)하여 제일이 되어, 청성백에 봉해졌다. 정종 원년 기묘(1399)에 다시 좌정승이 되었고, 경진년(1400)에 이를 그만두고 청성백으로서 사제에 나갔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으로 죽으니, 나이 74세였다. 부음이 들리매,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중사를 보내어 치제하고, 부의로 쌀·콩 각각 1백 석을 내려 주고, 시호를 정안(定安)이라 하였다. 성품이 온량(溫良)하고, 청렴하고, 공근(恭謹)하고, 충성하고, 부지런하여, 착한 일을 많이 하였으므로 죽으매 나라 사람들이 아깝게 여겼다(『태종실록』 권1 원년 정월 14일 갑술).

11) 조선 개국공신

12) 왕조실록에는 안효(安孝)라고 한다.

13) 『세종실록』에 실린 심온(?~1418)의 줄기는 다음과 같다

나이 11세에 고려의 감시(監試)에 합격하고, 국초에 병조와 공조의 의랑을 역임하였다. 정종이 왕위에 오르매, 보공장군·용무사대호군(保功將軍龍武司大護軍)에 제수되고, 신무사(神武司) 대호군으로 옮겼다가, 태종의 초기에 본직으로서 지각문사(知閣門事)가 되고, 4년(1404)에 대호군으로서 간판내시(幹辦內侍茶房事)가 되고, 조금 후에 용양사 상호군에 승진되어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를 겸하였다. 7년에 승정원동부대언에 발탁되어, 여러 번 승진하여 좌부대언이 되고, 조금 후에 가선대부·좌군동지총제에 임명되고, 11년에 가정대부·풍해도도관찰사(嘉靖大夫豊海道都觀察使)에 임명되었다가 들어와서 참지의정부사(叅知議政府事)가 되고, 조금 후에 사헌부 대사헌이 되고, 14년에 자헌대부·형조판서가 되었다가 호조판서로 옮겨졌다. 이로부터 한성판윤, 의정부참찬, 좌군도총제(左軍都總制) 등을 역임하고, 정헌대부·이조판서가 되었다.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국구(國舅)로서 청성부원군(靑城府院君)에 봉하고, 조금 후에 영의정부사가 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나이 44세이다. 심온은 성품이 인자하고 온순하여 물정(物情)에 거슬리지 않았다(『세종실록』 권2 즉위년 12년 25일 경자).

14) 1468년(예종 즉위) 유자광(柳子光) 등의 주동으로 남이·강순(康純) 등을 반역죄로 다스려 처단하는 데 공을 세운 자들에게 내린 공신칭호. 신숙주·한명회·한계순(韓繼純)·유자광 등 38명에게 수여되었다. 1등공신은 수충보사병기정난(輸忠保社炳幾定難) 익대공신, 2등공신은 수충보사정난 익대공신, 3등공신은 추충정난(推忠定難) 익대공신이라 하였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15) 실록에는 공숙(恭肅)이라고 하였다.

16) 『성종실록』에 실린 심희(1418~1493)의 줄기는 다음과 같다.

청송부원군 심희가 졸하였으므로, 철조하고 조제와 예장을 예대로 하였다. 심희의 자는 청보(淸甫)이고 본관은 청송으로 영의정부사 심온의 아들이다. 심희는 심온의 죄에 연좌되어 폐하고 서용되지 않았는데, 문종이 비로소 돈녕부주부에 제수하였고, 수차례 옮겨서 부지돈녕부사에 이르렀다. 경태(景泰) 계유년(1453)에 올라서 통정대부·첨지중추원사가 되었고, 얼마 안되어 가선대부·동지돈녕부사로 올랐다. 천순(天順) 정축년(1457)에 자헌대부·공조판서에 올랐고, 판한성부사로 옮겼다. 신사년(1461)에 보국승록대부·영중추원사를 더하였고, 이옥고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좌의정을 더하였다. 성화(成化) 정해년(1467)에 영의정으로 올랐다가 이옥고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로 옮겼다. 무자년에 남이가 난을 도모하였다가 죽음을 당하자 수충보사정난익대공신(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청송군에 봉하였다. 신묘년(1471)에 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의 칭호를 내렸고, 병신년(1486)에 다시 좌의정이 되었다. 이때 왕비를 폐하고 중궁의 자리를 바르게 하였는데, 심희가 주문사(奏聞使)로 북경에 가서 고명(誥命)을 받아 가지고 돌아왔으므로, 노비와 전토를 내려 주었다. 기해년에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으로 바꾸어 봉해졌고, 병오년에 나이가 다 되었다고 하여 퇴임하기를 바랐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홍치(弘治) 신해년(1491)에 궤장(几杖)을 내려 주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하였으니, 나이는 76세이다. 시호는 공숙(恭肅)이다. 사신은 논한다. 심희는 성품이 대범하고 중후하여, 비록 학술은 없어도 천성이 정직하였다. 그가 나라의 정사를 의논할 때에는 영합하거나 부회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치밀하여 훈공의 칭호를 보전할 수 있었으니, 외척의 현명함으로써 심희만한 자가 없었다(『성종실록』 권273 24년 정월 12일 무인).

17) 『명종실록』에 실린 심연원(1491~1558)의 줄기는 다음과 같다.

영중추부사 심연원이 졸하였다. 심연원은 성품이 자상하고 온아(溫雅)하며 마음 쓰는 것이 겸손하고 근신하였다. 두 번 급제하고 청현직(淸顯職)을 두루 지내다가, 김안로에게 미움을 받아 외직으로 나가 제주목사가 되었었고, 국구(國舅)의 아버지로서 정승 자리에 있게 되어서는 늘 부귀가 극성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더욱이 사류를 애석히 여겨 김규가 옥에 있을 때에 억울함을 밝혀서 구해준 적이 많았으며, 김여부(金汝孚) 등이 봉당을 맺고 난을 선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맨 먼저 경연에서 아뢰어 조정이 안정되게 하였다. 그러나 정승으로 있던 10여 년 동안에 크게 건명(建明)한 것이 없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린 자취가 많이 있으며, 또 전장을 넓게 차지하여 집을 크게 지었으므로, 탐욕하고 사치한 병통이 있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다(『명종실록』 권24 13년 6월 19일 을미).

18) 『명종실록』에 실린 심강(1514~1567)의 줄기는 다음과 같다.

영돈녕부사 심강이 졸하였다. 심강은 심연원의 아들로, 계묘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활인서별좌(活人署別坐)에 음보(蔭補)되었다가 명종이 즉위하자 중궁의 아버지로 영돈녕부사에 제수되었다. 은총을 빙자하여 재물을 탐하고 뇌물을 받아 인심을 사며, 많은 전택을 차지하고 남의 노비를 탈취하는 등 마구 거뒀었다. 그러나 성격이 시기하지 않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었다. 박순(朴淳) 등이 임백령(林百齡)에게 좋은 시호를 허여하지 않자 그의 자제들이 윤원형에게 울면서 호소하여 왕에게까지 알려졌다. 왕이 크게 노하여 대죄를 가하려는 생각으로 가만히 심통원(沈通源)에게 물으니, 심통원이 왕의 뜻대로 아뢰었다. 심강이 듣고 즉시 달려가 구제하자 심통원이 다시 심강의 뜻대로 궁중 안에 아뢰어 사건이 마무리되고 박순 등이 드디어 형화(刑禍)를 면하게 되었다. 심강의 아내는 이양의 누이동생이다. 이양이 그 세도를 믿고 갑자기 일어나 용사하여 권세가 혁혁하였는데 심강의 아들 심의겸이 등과한 뒤로는 심씨의 세도가 더욱 커지자 자기와 맞서는 것을 미워하는 한편 자신이 공론에 용납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이감(李戡) 등과 더불어 명류(名流)들을 공격하므로 온 조정이 두려워하였다. 심의겸이 이양을 만날 적마다 그 불가함을 지적하자 이양이 심의겸까지 아울러 제거하려 하였다. 심강이 이를 가만히 궁중에 알리고 기대항(奇大恒)을 시켜 논핵하여 이양 등이 축출되기에 이르니 온 사림이 고맙게 여겼다(『명종실록』 권34 22년 정월 20일 병자).

19) 조선시대 영의정 · 좌의정 · 우의정 등 3정승.

20) 임금의 장인. 곧 왕비의 아버지.

21) 전교하였다. “고 위사공신 영중추부사 · 청천부원군 심연원의 적장손인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 심인겸(沈仁謙)에게 전례에 의거하여 곧바로 6품직을 제수하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심인겸은 바로 중전의 동모제이다. 별제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이 명이 내려졌으니, 외척에 사정을 두고 조종의 성헌을 따르지 않음이 심하다. 임진의 경천(徑遷)은 문정왕후의 잘못된 은총이다. 그 전례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어찌 재차의 잘못이 용납될 수 있겠는가. 만기가 차야 승천(陞遷)하는 것이 조종조의 전례인데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공신의 후손을 후대한다 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는 전례를 적용하려 하니 심인겸에게는 후한 일이나 어찌 정체의 문란함을 생각하지 않는가. 또한 한 몸으로 만기의 번거로움을 처리하므로 비록 임진의 전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상 자신이 미리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상에게 이 전례를 알도록 한 자는 누구란 말인가. 관작은 조정의 공기인데, 자급과 서열을 뛰어넘는 일이 다 심인겸의 사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니, 외척의 권세가 이로부터 제어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이다. 타오르는 불길 잡지 않으면 반드시 별판을 태우게 마련인데, 대간의 말이 강력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척리가 기세를 부리게 될 조짐을 만들어 놓았으니 애석한 일이다(『명종실록』 권32 21년 정월 12일 갑진).

22) 『선조수정실록』에 실린 심의겸(1537~1587)의 줄기는 다음과 같다.

전 청양군(靑陽君) 심의겸(沈義謙)이 졸하였다. 심의겸은 자신이 귀척(貴戚)의 자리에 있었으나 천성이 본디 엄하고 근신하여 밖으로는 조사 가운데 선류(善類)를 부호하고 안으로는 궁금(宮禁)의 사적인 길을 막았으니 일시의 사부(士夫)가 이로써 중하게 여겼다. 그러나 공격(攻斥)하는 자는 또한 이것을 구실로 삼아 그가 전천(專擅)함을 논하여 양기(梁冀)와 두헌(竇憲)에 비하였으나 또한 탐오(貪污)한 명칭을 가하지는 않았다. 명경(名卿)과 현사(賢士)로서 일찍이 그와 서로 사이 좋게 지낸 자는 모두 연루당하여 간당(奸黨)으로 지목되었지만, 모두 차마 버리지 못하고 것처럼 사귀고 가까이 지냈다. 심의겸이 파주 촌사에 물러나 있으면서 시론이 더욱 준엄함을 듣고 매양 집안 사람에게 말하기를 “밥상에 조복(條腹) 요리를 올리고 입으로 사론을 말하였으니, 남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대개 조복은 금중의 특이한 반찬으로 외척에게 나누어 보내는 것이다. 심의겸이 시종 사론과 주선하였으므로 처음 청명할 때를 당해서는 드러낼 만한 과악이 없었으나, 권세의 혐의를 피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영충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화의 우두머리가 됨을 면치 못하였으니, 그가 받아들여 죄로 삼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선조수정실록』 권21 20년 9월 초하루 정해).

23) 『영조실록』에 실린 심택현(1674~1736)의 졸기는 다음과 같다.

좌참찬 심택현이 졸하였다. 심택현은 성망(聲望)이 조금 모자랐으나, 을사년 이후 자못 당론을 일삼아 드디어 전병(銓柄)의 관직을 두루 주관했었다. 그러다가 탕평론(蕩平論)이 일어나게 되자, 번임(藩任)에 많이 있었으며, 조정으로 들어와서는 한만(閑漫)한 관사의 직책에 보임되는 데 불과하였다. 게다가 연로하여 시세에 따라 부침(浮沈)하면서 장단(長短)을 논한 것이 없었으며, 주관 없이 추종하면서 벼슬자리만 채웠을 뿐이었다(『영조실록』 권42 12년 12월 9일 무진).

24) 조선 후기 영조가 당쟁을 해소하기 위해 당파간의 정치세력에 균형을 꾀한 불편부당의 정책. 탕평이라는 말은 『서경』 「홍범」의 ‘無偏無黨王道蕩蕩 無黨無偏王道平平’이라는 글에서 유래하였다. 신임옥사(辛壬獄事)의 와중에서 왕위에 올라 당쟁의 폐단을 뼈저리게 겪은 영조는 1724년 즉위하자 당쟁의 폐단을 지적하고 탕평의 필요를 역설하는 교서를 내려 탕평정책의 의지를 밝혔다. 1730년(영조 6) 그의 옹립에 공이 컸던 노론의 강경파 영수 민진원(閔鎭遠)과 소론의 거두 이광좌(李光佐)를 불러 양파의 화목을 원하는 한편 그의 시책에 호응하지 않는 호조참의 이병태(李秉泰), 설서(說書) 유최기(兪最基) 등을 파면하였다. 또한 노론의 홍치중(洪致中)을 영의정, 소론의 조문명(趙文命)을 우의정에 임명함으로써 당파를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고 일반 유생들의 당론에 관련된 상소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1742년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세우는 등 당쟁의 해소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영조의 탕평책에 의한 화해기운 조성에도 불구하고 뿌리깊은 당파의 대립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사도세자사건을 계기로 시파(時派)와 벽파(僻派)가 생기게 되었다. 사도세자를 두둔하여 시파라 불린 남인

들은 과거에 합격해도 이를 취소하는 바람에 수십년 동안 과거의 응시를 거부하였으며, 이인좌(李麟佐) 등 과거과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영조를 이은 정조도 탕평책을 계승하여 그의 거실을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 하고 노론·소론뿐만 아니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서얼도 글 잘하는 사람을 등용하였으며, 남인 출신을 영의정에 앉히는 등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써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 25) 심풍지(1738~1793)는 정조대에 활약한 인물로 수찬, 부교리, 교리, 헌납, 감시어사(監市御史), 이조좌랑, 의정부검상, 지평, 이조정랑, 이조참의, 대사간, 대사성, 대사헌, 홍문관부제학, 이조참판, 도승지, 홍충도관찰사, 예조참판, 가례도감제조(嘉禮都監提調), 예조판서, 형조판서, 한성판윤 등을 지냈고 시호는 정간(貞簡)이었다(『정조실록』).
- 26) 조선시대 문한기관인 홍문관의 장관인 대제학의 별칭.
- 27) 정정(正貞)이라고도 한다.
- 28)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
- 29) 기기(頎頎)는 키가 큰 모양, 휴휴(休休)는 아름다운 모양. 결국 그의 키가 크고 용모가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 30) 심능약(1766~?)은 순조와 헌종대를 걸쳐 지평, 의주부윤, 이조참의, 승지, 형조참판, 대사성, 대사간, 함경도관찰사, 이조참판, 황해도관찰사, 공조판서, 비변사제조, 예조판서, 병조판서, 세자우빈객, 좌참찬,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순조실록』, 『헌종실록』).
- 31) 자는 성서(聖西)이며 순조 4년(1804) 출생하여 순조 31년 식년 생원시에 2등급 제15위로 합격한 사실이 있다(『사마방목』).
- 32) 조선 23대 순조 임금.
- 33) 본래 고구려의 양악군(楊岳郡)인데, 고려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어, 현종 9년(1018)에 풍주(豊州) 임내에 붙어있다가, 예종 원년 병술(1106)에 비로소 감무관(監務官)을 보냈으며 새로 감무를 정한 것이 이로부터였다. 충목왕 4년 무자(1488)에 지군사(知郡事)로 승격하고,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별호는 양산(楊山)이다(『세종실록』 권152 지리지 황해도 황주목 안악군).
- 34) 조선시대 성균관의 으뜸 벼슬인 정3품의 당상관직. 유학과 문묘의 관리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법제상 전임직이었지만 겸직하는 예가 많았는데, 정3품관이 아닌 상위의 1·2품 관원이 겸직하는 예도 있었다. 순조 때 폐지되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 35) 충청도 관찰사를 말한다.
- 36) 조선시대에 명나라와 청나라에 정기적으로 파견한 사신의 우두머리. 대체로 동지 절기를 전후하여 보냈으므로 동지사라 하였다. 정사는 3정승 또는 6조의 판서 중에서 임명했으며, 정사 이외에 부사·서장관·종사관(從事官)·통사(通事)·의원(醫員)·사자관(寫字官)·화원(畫員) 등 40여 명이 수행하였다. 조선

의 특산품인 인삼·호피(虎皮)·수달피(水獺皮)·화문석(花紋席)·종이·모시·명주·금 등을 선물로 가져갔는데, 1429년(세종 11)에 금은 면제되었다. 이와 같은 선물을 받은 명·청나라에서는 그에 맞먹는 중국의 특산품을 조선에 선물했으므로 이 선물교환은 일종의 공무역이었다. 동지사의 파견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까지 계속되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 37) 임금이 친히 지내는 제사.
- 38) 의례를 도와준 것을 말한다.
- 39) 조선시대 세자를 보도하는 세자시강원의 관직. 1392년(태조 1)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2품으로서 좌·우 빈객 각 1명을 두었는데, 같은 품계를 가진 타직(他職)의 관원이 겸임하였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 40) 조선시대 역대의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신 왕가의 사당. 사적 제125호. 총면적 5만 6503평. 서울 종로구 훈정동 소재. 원래는 정전(正殿)을 가리키며, 처음에는 종묘라고도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7묘제도를 따르다가 중기 이후부터는 치적이 많은 왕은 7대가 지나도 정전에 그대로 모셨으며, 그 밖의 신주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겨 모셨는데, 이를 조천(祧遷)이라고 하였다. 종묘의 정전에는 19실에 19위의 왕과 30위의 왕후 신주를 모셨으며, 영녕전에는 정전에서 조천된 15위의 왕과 17위의 왕후 및 의민황태자(懿愍皇太子)의 신주를 모셨다. 신주의 봉안 순서는 정전의 경우 서쪽을 위로 하고 제1실에 태조가 봉안되어 있고, 영녕전에는 추존조(追尊祖)인 4왕(목조·익조·탁조·환조)을 정중(正中)에 모시고 정전과 마찬가지로 서쪽을 상으로 하여 차례대로 모셨다. 이를 소목제도(昭穆制度)라고 한다. 종묘의 조영(造營)은 1394년(태조 3) 12월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할 때 중국의 제도를 본떠 궁궐의 동쪽에 영건(營建)을 시작하여 다음해 9월에 1차 완공하였다. 그 뒤 1546년(명종 1)까지 계속되었으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8년(광해군 즉위년) 중건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정전의 남문을 들어서면 동쪽으로 문의 동쪽으로 공신당(功臣堂), 서쪽으로 칠사당(七祀堂)이 있고, 곧바로 정전에 이른다. 정전의 서문을 나서면 영녕전의 동문과 이어지고, 영녕전에도 정전과 같이 서문·남문·동문이 있으며, 영녕전의 북동쪽에 제기고(祭器庫)가 있다. 정전의 북동쪽에는 전사청(典祀廳)이 있고, 그 주위에 제정(祭井)·판위대(版位臺)·수복방(守僕房)이 있으며, 정전 남동쪽에 재실(齋室)이 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 41) 이 해에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갑신정변이 평정된 뒤 수구대각이 들어서자 영의정에 올랐다.
- 42) 조선시대 말기 훈장의 하나. 4번째 등급의 훈장으로서 태극장은 1등에서 8등까지 있었으며 모두 국가에 특별한 공이 있을 때 황제의 특지(特旨)로 수여하였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 43) 조선시대 말기 훈장의 하나. 훈장은 금척(金尺)·서성(瑞星) 등과 함께 3대훈

장(大勳章)이었으며 등별이 없었다. 훈장은 표훈원(表勳院)에서 관장하여 연금과 일시금이 따랐고, 1월과 7월에 수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자격은 본인에 한하며 자손에게는 계승되지 않았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44) 기로소의 별칭. 기로소는 조선시대에 나이가 많은 문신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정식 명칭은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 왕 및 조정 원로의 친목·연회 등을 주관하였으며, 영조 때 수직관(守直官) 2명, 서리(胥吏) 2명, 고직(庫職) 1명, 사령(使令) 44명, 군사 1명을 두었는데, 수직관은 승문원(承文院)과 성균관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이 차출되었다. 1394년 태조는 60세를 넘자 기사를 설치하여, 처음에는 문·무신을 가리지 않고 70세 내외의 2품관 이상의 관료를 선발하여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임금 스스로도 이름을 올려 전도·염전(鹽田)·어전(漁箭)·노비 등을 사여함과 아울러 군신이 함께 어울려, 연회를 베풀며 즐겼다. 태종 즉위 초에 이를 제도화하여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라 하다가, 1428년(세종 10) 치사기로소로 고쳤다. 중기 이후 기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어 정경(正卿: 정2품)으로서 70세 이상된 문신으로 국한하였다. 숙종 때에는 이들을 기로당상(耆老堂上)이라 하였으며, 군신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라 하여 관아의 서열에서는 으뜸을 차지하였다. 기로소가 맡은 일은 임금의 탄일, 정조(正朝: 설)·동지, 그리고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왕이 행차할 때, 모여서 하례를 행하거나, 중요한 국사의 논의에 참여하여 왕의 자문에 응하기도 하였다. 1719년(숙종 45) 왕이 6순이 되었을 때 기로소에 들어가면서 경내에 영수각(靈壽閣)을 짓고 어첩(御牒)을 봉안하였다. 일단 기로소에 들어가면 녹명안(錄名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개국 이래의 것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그 후 다시 편찬한 『기로소제목록후 耆老所題目錄後』에 의하면, 여기에 들어온 왕은 태조·숙종·영조 등이고, 최고령자는 현종 때의 윤경(尹綱)으로 98세였으며, 다음 숙종 때 97세의 이구원(李久源), 96세의 민형남(閔馨男) 등이 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45) 덕수궁의 침전(寢殿). 보물 제820호. 정면 9칸, 측면 4칸으로 익공계(翼工系) 양식의 팔작지붕이다. 1897년(건양 2)에 창건되었으나, 1904년(광무 8) 화재로 불탔다. 현재의 건물은 화재 직후에 중건된 것이다. 이 전각은 고종이 거처하던 곳으로, 임금자리를 순종에게 물려준 후 잠시 수옥헌(漱玉軒)에서 거처하였으나, 순종이 창덕궁으로 옮긴 후 다시 이 곳에서 거처하다가 1919년 여기에서 승하하였다. 건물은 커다란 기단 위에 앉혔고, 집 들레에는 거느림집[行廊]과 흙벽이 둘러 있다. 집의 평면은 한쪽 뒷면에 4칸이 더 붙여진 ㄱ자형인데, 기둥 사이는 대개 동일하고, 좌우의 한 칸씩만 협간(夾間)처럼 되어 있다. 바른편 끝에는 높직한 돌기둥을 세우고, 기둥 밖으로 뒤틀마루가 달렸는데, 이것이 뒷면으로 이어져 ㄱ자형으로 꺾어져서 난간 끝까지 이르고 있다. 앞면 가운데 3칸의 퇴간은 트였고 나머지 전부는 거실로 사용하도록 꾸몄다. 또 4면 벽에는 토벽이 없고, 교창문(交窓門)과 정자살[井字箭] 및 가는 살창문의 상중하에 가로살을 댄 띠살창문

- 의 사분합(四分閣) 문짝만이 달려 있다. 처마는 겹처마로, 각 마루에는 취두(鶯頭)·용두(龍頭)·잡상(雜像)이 놓여 있다. 합각 부분에는 나무엮음을 하지 않고 화문장(花文牆)처럼 무늬를 놓은 흙벽이 쳐졌다. 집은 매우 크고 무게가 있으면서도 장식은 매우 간소하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 46) 1895년(고종 32) 궁내부(宮內部)에 속한 승선원(承宣院)을 비서감(秘書監)으로 고쳤다가 비서원(秘書院)으로 개칭하였다. 1905년(광무 9) 다시 비서감으로 고쳤는데, 명칭에 관계 없이 주임관(奏任官)의 비서승을 두었다가 1907년(융희 1)에 폐지하였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 47) 임금이 신하에게 술을 내리는 일.
- 48) 높고 원대함.
- 49) 편협되게 치우치지 않고, 두루 다스림 또는 전체를 다스림.
- 50) 험조(險阻)한 모양 또는 행동하기 어려운 상태의 뜻으로 심순택이 민씨 척족의 미움을 받아 권력에서 쫓겨난 상태를 표현하는 것 같다.
- 51) 서산의 해가 지는 것, 그와 같이 국가가 쇠망으로 가고 있다는 뜻
- 52) 김옥균·박영효·홍영식(洪英植) 등이 주도한 갑신정변을 말한다.
- 53) 왕후 민씨가 일본의 낭인에 의해 처참하게 시해된 일
- 54) 엿드림. 즉 활동하지 않고 조용히 은거하는 것
- 55) 두터이 대우하는 것
- 56) 일상의 생활
- 57) (1854~1907). 한말의 문신·정치가. 자는 공필(公弼), 호는 석현(石峴), 본관은 전주. 함북 명천(明川) 출생.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 한문을 배운 후 민영익(閔泳翊)의 천거로 감역(監役)이 되어,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때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장호원(長湖院)으로 피신하자 남다른 빠른 걸음으로 연락을 취하여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되고 단천부사(端川府使)로 특진하였다. 1887년 영흥부사, 함남병마절도사가 되었으나 이듬해 민란이 일어나자 탐관오리로 탄핵받고 나주군 지도(智島)에 유배되었다. 곧 풀려나 강계부사로 등용되었다. 1897년 내장원경(內藏院卿)에 발탁되면서 정계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게 되었고, 그 후 감리서북광무(監理西北鑛務) 겸감사철도사(監司鐵道司)를 거쳐 탁지부(度支部) 전환(典圖) 국장이 되어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어 서북철도국 총재·중앙은행 총재 등을 역임하고, 1902년 탁지부 대신이 되어 이준·민영환·이상재 등과 개혁당을 조직하였다. 친러파의 수령으로 일본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1903년 평북 용암포(龍巖浦)의 조차권(租借權)을 러시아에 넘겨주기 위한 막후활동을 하면서, 내장원경으로서 황실의 재산관리도 철저히 하였다. 1904년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가 체결된 후 배일친러파로 일본에 납치되었다가 이듬해 귀국, 경북관찰사에 등용되었는데, 그 동안 보성사(普成社) 인쇄소를 차리고 보성학원(普成學院: 지금의 고려대학)을 설립하였다.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그 후 군부대신에 기용되었으나 사퇴하였다. 육군 부장(副將)이 되어 일제 세력의 축출을 위하여 프

랑스·러시아 세력과의 제휴를 피하라는 황제의 밀령을 받고 프랑스로 가던 도중 풍랑으로 중국 산둥성 옌타이[煙臺]에 기항하였다가 현지 일본관헌에게 발각되었는데, 책임추궁을 두려워한 본국 정부에 의하여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였다. 그 후 블라디보스토크 등지로 망명하여 구국운동을 계속하다가 병사하였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58) 궁궐 편전의 앞문, 궁궐의 정문.

59) 을사보호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은 1905년(광무 9)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압하여 체결한 것으로 제2차한일협약·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의 체결 소식이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 皇城新聞』에 신문사 사장 장지연(張志淵)이 「시일야망성대곡」이라는 논설을 게재함에 따라 전국에 알려져 국민들의 조약 체결에 대한 거부와 일제에 대한 항쟁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60) 을사조약의 소식을 듣고 자결한 조병세(趙秉世: 1827~1905)를 가리킨다. 자는 치현(禔顯), 호는 산재(山齋), 시호는 충정(忠正), 본관은 양주. 노론파의 명문에서 태어나 음관(蔭官)으로 참봉이 되고, 1859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사관(史官)을 거쳐 1864년 실록청도청낭청(實錄廳都廳郎廳)으로 『철종실록 哲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1874년 함경도 암행어사를 거쳐 1877년 대사헌에 승진되었고, 이어 의주부윤, 다시 대사헌을 거쳐 1887년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이듬해 예조·이조의 판서가 되고, 1889년 한성부판윤·우의정을 거쳐 1893년 좌의정이 되었다. 1894년 중추원좌의장(中樞院左議長)이 되었다가 사직하고 은거하였다. 1896년 폐정개혁을 위하여 시무 19조를 상소하였고, 1898년 재상에 임명되었으나 사퇴, 1900년 다시 입궐하여 국정의 개혁을 건의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권회복과 을사5적의 처형을 주청하기 위하여 고종을 만나려 하였으나 일본군의 방해로 거절당하였다. 이어 민영환(閔泳煥) 등과 함께 백관을 인솔하고 입궐하여 조약의 무효와 을사5적의 처형 등을 상소하다가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당하고 표훈원(表勳院)에 연금되었다. 곧 풀려났으나 다시 대한문(大漢門) 앞에서 석고대좌하며 조약의 파기를 주장하다가 또다시 일본헌병에 강제연행되었다. 그후 가평 향제로 추방되었으나 다시 상경하여 표훈원에서 유소(遺疏)와 각국 공사 및 동포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결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61) 내시.

62) 자질 구레하거나 사소한 일.

63) 몇가지 중요한 일로서 나머지 자질구레한 일들을 모두 보여준다는 뜻이다.

64) 가정에서의 행동.

65) (1832~?) 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치은(稚殷), 본관은 청송. 1857년(철종 8) 왕대비 오순(五旬) 경축 경과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대교(待敎)를 거쳐 1859년 암행어사를 거쳐 의주부윤이 되었으나, 1864년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면서

그가 안동김씨와 가까워 흥선을 '궁도령(宮道令)'이라 조롱하였던 일로 삼사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고 유배되었다. 1873년 대원군의 하야 후 유배에서 풀려났으며, 다음해 이조참의에 이어 대사성, 개성부유수, 전라도관찰사, 광주유수, 한성판윤, 이조·예조·형조·호조의 판서 등 요직을 거쳤다. 한편 1874년에는 동지사의 부사로, 1882년에는 진하사은·겸세폐사(進賀謝恩兼歲幣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1889년에는 원접사(遠接使)로 일본사신을 접견하였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 66) 이 부분의 출전은 『시경(詩經)』 「대야(小雅)」편이다.
- 67) 첫 번째 배우자.
- 68) 배우자를 잃고 다시 얻은 배우자.